

지율 스님, 조선일보에 승소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도롱소송 대변인’을 자처하며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인 지율 스님(사진)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9월 2일 “과장 허위보도로 지율 스님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율 스님에게 입힌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율 스님의 청구에 따라 위 자료를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터널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가 145억 원 수준인 데도 조선일보가 2조 5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10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9월 2일 지율 스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언론과 정부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종교인의 사회참여를 비하하고 불신의 골을 파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었다. 하지만 소송과정을 통해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러 31일에는 부산 해운대에 홀로 거주하는 최연이 할머니(73·법명 연복심)가 2억1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동국대에 기부했다. 이미 동국대 의과대학에 사후 시신기증까지 신청한 최 할머니는 직물공장 직공과 합천 해

박선주 기자

“일본의 독도 강탈야망 규탄”

평불협·조불련 공동 성명 발표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 조선 동해이며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겨레가 살아온 우리의 신성한 영토이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다, 이하 평불협)는 9월 1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서기장 정서정, 이하 조불련)와 공동으로 ‘일본의 독도 강탈야망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불협과 조불련은 성명서를 통해 “조선 동포들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6·15공동선

언과 10·4선언을 실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자립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고 일제의 독도 강탈야망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며 “하나로 합쳐 신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나가려는 온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불협과 조불련은 내년은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일본의 독도강탈행위가 계속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동국인을 위해 써주세요”

태현 스님·현종 스님·최연이 할머니 등 기부 줄이어

조계종립 동국대에 불자 학생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8월 2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 태현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현종 스님(앞줄 맨 왼쪽).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광주 불국사 회주 태현 스님과 서울 삼삼암 주지 현종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이 장학금 1억원을 약정하고 우선 2009학년도 2학기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어 31일에는 부산 해운대에 홀로 거주하는 최연이 할머니(73·법명 연복심)가 2억1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동국대에 기부했다. 이미 동국대 의과대학에 사후 시신기증까지 신청한 최 할머니는 직물공장 직공과 합천 해

인사 등에서 공양주 보살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을 내놓았다. 최연이 할머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아파트를)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요긴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최 할머니의 뜻에 따라 기부 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장학금으로 인재양성에 활용할



전 재산을 기부한 최연이 할머니.

예정이다. 또 태현·현종 스님의 장학금에는 태현 스님의 법호를 따 ‘연봉 장학’을 제정했다. ‘연봉 장학’은 ‘불교 청년지도자육성 장학금’ 사업에 편입돼 불자 학생에게 대학기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는 10월 10일 오후 4시부터 전체 동문 및 기부자가 참여하는 ‘2009홈커뮤니티’를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기본합의 수용해야 통일 논의”

화해상생마당 ‘통일 평화 모색’ 심포지엄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예외없이 수용하고 재확인해야 통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9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화해상생마당 심포지엄.

중도적 사회원로모임인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장 윤여준)’은 9월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종식 선언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일만이 완전한 자전해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은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백 교수는 “현 위기를 넘기는 첫 번째 보수 세력 중심으로 타개하려는 것은 한국자본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과 주변국들의 현실주의적 선택을 아울러 무시한 처방”이라며 “포용정책 자체에 반대

하는 세력이 국정을 주무를 수 없도록 국내 정치 사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일(서울대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포용 통일론”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정책만 있었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의지를 담은 정책은 없었다”며 “언젠가 우리나라 대북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여야 합의, 국민들의 없이 대통령 개인의 소신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국민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대북 정책도 당국자 정책뿐 아니라 북한 동포에 대한 직접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 합동의 ‘선진화 통일 추진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토론은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윤여준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 前 환경부 장관, 그리고 김용호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박선주 기자

삼천일기도 회향 “아직 할 일 많아요”

33년 교도관 복무 후 퇴직한 이남수씨

“또 다른 시작입니다. 소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발원과 회향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 동네’라고 불리는 구치소 안에서 남몰래 선행을 펼쳐 온 이남수(59·사진) 거사는 지나치리만큼 겸손한 모습이었다. 이남수 거사의 ‘이웃을 위한 3000일 기도 회향식’이 있던 9월 3일 안양 선유정사주지 선대에는 신도들과 기도 회향을 축하 하기 위해 달려온 서울구치소 직장 동료들이 자리를 메웠다.

6월 서울구치소에서 33년간 교도관으로 복무하고 퇴직한 이남수씨. 그는 서울구치소불심회 회장을 역임하며 사형수 3명을 감형하는 등 종교를 초월해 평생 기도하며 살아왔다. 남다른 포교활동에 전념해온

그는 수용자들에게 어머니이자, 간호사이자 의사였다. 사형수를 위한 감형발원기도, 영치금 지원, 불사와 영주, 내복 지원 등 아낌없는 자비행을 펼쳐왔다. 남몰래 펼쳐진 선행은 끝이 없었다. 이러한 그의 선행은 모두에게 감동으로 전해져 서울구치소불심회 회원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정도였다.

“한 번은 자신이 사형될 것을 모르고 있었던 수감자가 오모라이스를 주문했습니다. 오모라이스를 전달하려 갔을 때 그는 이미 사형집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슬픔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삶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앞으로 저는 이차돈의 순교정신으로 불교 증흥을 위해 쉽 없이 계속 기도하며 살 겁니다. 선유정사의 버



팀목으로 어린이 포교와 전법, 선명 장학회 설립, 거사회 활성화 등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유지에 따라 유산을 장학회 설립에 쓸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3000일 기도 회향날이 우란분절 백중날인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상연 기자

“교과부 조치 미봉책에 불과”

서불대 학생회 기자회견... 조속사태해결 촉구

교육과학기술부의 잇단 계고에도 여전히 표류 중인 서불대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불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불교대학교 학생회(회장 오세준, 이하 서불대학생회)는 9월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서불대학생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로 나온 조치들은 서불대 이사회에 위기를 모면한 기회를 준 것과 다르다”며 “15개월간의 결건 이사들의 만행을 허울 좋은 미봉책으로 묵과하고, 그 책임을 전혀 물으려하지 않는

교과부의 해결방식은 서불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앞으로 더 장기화 될 서불대 비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현 이사회와 전원승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부당한 이사회에 항의했던 교수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졸업은 또다시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하고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롱하고 사학비리에 편승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

1. 일시: 9월 26일(토) 오후 1~5시
2. 장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 별자리광장)
3. 코스: 월드컵공원 난지순환길(6km)
4. 참가대상: 환우와 가족,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등 누구나 *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예정
5. 접수기간: 9월 21일까지
6. 신청문의 및 접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 www.lisa.or.kr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 등 8개 불교인문사
 후원: 행정안전부, BS HLA Lab, 녹십자의료재단, (주)은은, 서울메트로 안국역 모금계좌: 농협 053-01-271485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장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미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중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경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